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오류와 오류 인식에 대한 연구

최은영
(전남대학교)

Choi, Eun-Young. (2015). Korean Learners' English Speaking Errors and Recognition of the Erro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3), 129-15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earners' English speaking errors and their error recognition. To investigate the issues, the 44 undergraduates took TOEIC Speaking Test, and three native speakers of English transcribed the recordings and analyzed the errors. The participants then self-corrected their own scripts. The self-corrected data were compared to the original scripts to examine their error recognition. The original errors and corrected on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noun phrase, verb phrase, adjective phrase, clause/sentence structure phrase, prepositional phrase, cardinal numeral/price terms and miscellaneous.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errors were found in the order of noun phrase, verb phrase, number/price terms etc. In the error recognition, errors in BE omission and subject and verb omission were recognized and corrected well, but errors in most of the subcategories were not corrected at all. Finally, number disagreement, article and subject and verb disagreement errors were attempted to correct but failed. Based on the findings,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오류분석(Error Analysis), 오류인식(Error Recognition), 토익 스피킹 시험(TOEIC Speaking Test)

1. 서론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error)는 학습자의 목표언어 습득과 발달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Brown, 1994).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Corder(1981)가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

자의 언어발달과 언어체계 상태를 설명해 주는 실제적인 지표가 된다. 오류는 또한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므로 효과적인 교수방법 및 교수계획 수립에 유익하다(Sharma, 1981). 따라서 교사와 연구자는 물론 학습자 자신도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류분석이 영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분석 연구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작문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이 제1언어의 전이(transfer)와 목표언어 내의(intra-lingual)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박영예, 1999; Kim, 1987; Kim, 1998 등). 말하기 오류와 관련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김영실, 2004; 노선경, 2010; Chin, 2001; Yoon, 2012). 이들은 학습자의 오류가 특정한 범주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러한 오류들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외국어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류연구가 연구대상과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언어습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또한 피험자들의 오류가 언어능력 부족의 결과인지, 언어수행상의 결과인지를 분석하거나, 실수였다면 발화 후 오류를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오류들과 토익 스피킹 시험 답변을 분석 자료로 사용한 본 연구가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둘째, 학습자의 오류 인식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수로 인한 것인지 언어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오류연구와 영어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토익 스피킹 시험 답변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문법 오류를 범주별로 분석하고, 이를 자가 수정을 거친 후 오류와 비교하여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인식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학습자의 범주별 문법적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가? 범주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오류는 무엇인가?
2. 학습자들의 말하기 오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오류분석 이론

오류분석(Error Analysis)이란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습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장지혜 & 나경희, 2012). 오류분석을 위해서는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oder(1981)와 James(1998)를 참고할 수 있다. Coder(1981)는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능력(performance)의 구별에 기초하여 오류(error)를 실수(mistake)와 구분하였다. 오류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목표어의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반면에 실수는 언어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되풀이 되지 않으며 비체계적이다. James(1998)는 오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화자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반면에, 실수는 화자가 잘못 발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면 스스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점 때문에 Coder는 오류분석에서는 언어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실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James도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습득과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닌 오류라고 밝히고 있다.

외국어 교수, 학습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은 교사, 연구자,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오류는 교사에게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교사가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둘째, 연구자들에게는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 자신에게는 목표언어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시험해 보면서 학습하는 언어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Corder, 1981).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목적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류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총체적 오류(global error)와 지역적 오류(local error)로 구분할 수 있다. 총체적 오류는 전체적인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어순이나 연결사 등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해가 되기 어려운 표현이다. 지역적 오류는 의사소통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 부분적 오류로 잘못된 관사나 동사의 굴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Brown, 1994; Burt, 1975; Dulay, Burt & Krashen, 1982).

Dulay, Burt & Krashen(1982)은 학습자들이 사용한 표현의 표층구조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표층전략분류법(surface strategy taxonomy)을 시도하였다. 이 분류법은 형태소나 동사의 표면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생략(omission), 첨가(addition), 잘못된 어순(misordering), 잘못된 형태(misformation) 네 가지로 오류를 분류한다.

그런데 학습자의 오류를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몇 가지 이유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대부분의 분석이 학습자 언어의 발달단계에 따른 총체적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특정 시점의 단면적인 분석에 치우쳐 있다. 이는 오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실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힘든 연구진행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고 교육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오류분석에 의존하는 것은 특정언어 자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김덕기, 1998).

오류와 실수의 구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로 보이는 모든 것을 학습자의 언어능력의 동일한 결함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모르는 것과, 알면서도 실수한 것과, 어렵פות이 알지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범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 오류분석의 실제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쓰기자료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많은 연구들이 외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제1언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전이오류(transfer error)와 목표언어 내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 내 오류(intra-lingual error)를 중심으로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고찰하였다(박영예, 1999; Kim, 1987; Kim, 1998 등).

말하기 자료에 대한 오류 분석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고, 수적으로 미미하다. 이는 말하기 오류의 수집과 분석이 쓰기 오류에 비해서 용이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연구는 오류를 분석하는 기준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학생 학습자의 오류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절/문장구조, 전치사구, 기타 등 6개 문법적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와 생략, 첨가, 잘못된 어순, 잘못된 형태의 사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경우가 그것이다.

Chin(2001)과 김영실(2004)은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Chin(2001)은 하위 수준의 대학 신입생 영어 학습자 33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오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피험자들은 2개의 컬러사진에 대해 약 5분간 묘사하였다. 또한 오류분석 결과를 6명의 영어 원어민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 올수 있는 오류 정도(상, 중, 하)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명사구와 동사구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세부 범주에서는 명사구의 관사(225)와 명사형태(119)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총 1214건의 오류 중 32%(390)가 제1언어의 습관이나 규칙이 목표언어에 옮겨지는 전이오류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장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오류로는 명사구에서는 대명사 사용, 어휘선택 오류, 동사구에서는 어휘선택, 동사생략, 태 오류, 그리고 문장구조에서는 주어동사 생략, 주어생략, 어순, 품사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실(2004)은 전문대학 비즈니스 영어학습자의 말하기 오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0명의 비서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명씩 짝지어 30쌍의 비서 전화 대화상황

역할극에서 발생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hin(2001)의 연구와 유사하게 명사구와 동사구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났고 하위 문법 범주에서는 명사구에서의 관사와 절/문장 구조의 어순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노선경(2010)과 Yoon(2012)는 학습자의 오류를 생략, 첨가, 잘못된 어순, 잘못된 형태의 네 가지로 분류한 표층전략분류법을 사용하여 각각 안정 상태의 성인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의 말하기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다.

노선경(2010)은 안정 상태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오류를 부자연스러운 오류와 의사소통 장애 오류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0년 이상 경력의 영어 관광 가이드 12명이었고, 자료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명의 원어민이 오류를 평가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오류 중 잘못된 형태를 사용하는 오류가 45%로 가장 많았고 생략 28.2%, 첨가 18.1%, 어순오류 8.7%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형태 사용의 오류 중에는 문법적인 것 보다는 의미적인 오류의 빈도가 더 많았고, 문법적 오류 중에는 전치사와 품사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말하기 오류 연구 중 Yoon(2012)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토익 스피킹 시험 문항을 텍스트로 활용한 유일한 경우이다. 그는 대학생 영어학습자 84명을 대상으로, 토익 스피킹 10번 문항을 활용하여 문법적 오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류는 2명의 원어민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략오류가 74.9%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형태 19.9%, 첨가오류 3.5%, 어순오류가 1.7%였다. 생략오류 내에서는 관사(29.9%), 전치사(15.6%)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두 연구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노선경과 Yoon의 연구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선경은 잘못된 형태를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Yoon의 경우는 생략오류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피험자의 영어수준과 연구방법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선경은 10년 이상의 관광가이드를 대상으로, Yoon은 영어를 배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영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경의 피험자는 형태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고, Yoon의 피험자는 불요불급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표현들을 아예 생략해 버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는 일상회화를 내용으로, 후자는 토익 스피킹 문항에 대한 대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전자는 안정 상태의 학습자를 30분~40분간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반면에, 후자는 중급 수준의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1분 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연구방법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즉, 오류연구는 학습자의 수준과 담화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오류분석에서는 오류로 보이는 것이 모두 학습자의 언어능력의 결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았었다. 앞 절에서 살핀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오류도 진정한 오류와 실수로 구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피험자들의 오류가 언어능력의 결과인지, 언어수행의 결과인지를 분석하거나, 실수였다면 발화 후 오류를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말하기는 쓰기보다 무의식적 과정이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습자가 범한 오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전라남도 소재 C대학 대학생 영어 학습자 4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2014년 2학기에 영어 원어민이 강의하는 주당 총 12시간 영어회화 집중수업 특별교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수강한 학생들이었다. 그 중 주당 4시간은 토익 스피킹 수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험자들은 한 학기동안 토익 스피킹 11개 문항을 모두 학습하였다.

이들은 1학년 42명, 3학년 2명이었으며 전공은 다양하다. 나이는 만 17세에서 25세이며 평균 19세이다. 성별은 남성 30명, 여성 14명이며,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6개월~1년: 3명, 1년 이상: 1명)이었다. 이 교과목에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각각 모의 토익 스피킹 시험을 사전, 사후평가로 실시하여 수강생들의 성취도를 점검하였다. 피험자들의 토익 스피킹 사전평가 점수는 평균 86점 4단계로 점수편차는 20점에서 190점으로 다양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피험자의 토익 스피킹 시험 결과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여부를 분석한다.

토익 스피킹 시험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국제적인 근무환경에서 영어 말하기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시험은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실시되며 시험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된다. 시험문제는 6가지 문제유형에 대해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¹⁾ 각 유형 문항별로 발음, 억양과 강세, 문법, 어휘,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한다. 점수는 총점 200점 만점이며 점수에 따라 능숙도가 8단계로 나뉜다.

본 연구는 2014년 2학기에 실시된 토익 스피킹 학기말 평가(사후평가) 결과 중 유형4에

1) 유형1은 주어진 문장을 크게 소리 내어 읽기로 2개 문항이다. 유형2는 사진을 묘사하는 문제이며 1개 문항이다. 유형3은 간단한 질문을 듣고 답하기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형4는 3개 문항이며 제공된 정보를 읽고 질문을 들은 후 답하기이다. 유형5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하기이며 유형6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각각 1개 문항씩이다.

해당하는 7번~9번 3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7번~9번까지의 총 답변시간은 1분으로 7번과 8번 문항은 각각 15초씩이고, 9번 문항은 30초이다. 토익 스피킹 전체 11개 문항 중 유형4의 3개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상황과 가장 유사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수준의 피험자들이 질문을 듣고 답변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유형이 주어진 정보를 읽은 후, 질문을 듣고 곧 바로 답변해야 하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상황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 피험자들은 토익 스피킹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사후평가 결과는 기말시험 점수에 10% 반영하였다.

피험자들은 학기말 시험의 일환으로 교내 멀티미디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토익 스피킹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토익 스피킹 시험 전문 업체에 의뢰해 모의시험²⁾으로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들의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은 피험자들의 시험을 위해 개설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녹음되어 저장되었다.

녹음된 답변은 전문 업체의 훈련된 채점자들에 의해서 채점되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점수는 평균 110점 5단계였고³⁾, 점수 편차는 60점~200점이었다.

녹음된 피험자들의 답변은 원어민 3명이 전사하여 피험자 개인별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스크립트 작성 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소리나는 대로 발음기호로 표시하고, 답변에 대한 망설임이나 그밖에 문법적이지 않는 문제점들도 함께 표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한 정답을 피험자의 답과 나란히 다시 작성하고 전반적인 총평을 기술하였다. 녹음내용 전사와 오류 분석에 참여한 원어민 3인(미국인 40대 남성, 캐나다인 30대 남성, 호주인 30대 여성)은 모두 피험자들에게 토익 스피킹을 교수했던 강사들로 자신이 교수했던 피험자들의 전사를 담당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의 녹음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원어민이 전사한 스크립트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어민이 전사한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수정한 내용이 강사별로 차이점은 없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구자와 원어민 3인이 의견을 조율하여 오류를 다시 분류하였다.

오류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초로 전사한 스크립트를 수업시간에 피험자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오류라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정하도록 하였으

2) 공인시험과 동일한 문제유형, 절차로 진행되며 채점은 토익 스피킹 시험 전문업체 원어민이 채점하여 결과가 통보된다.

3) 5단계는 110~120점이며 다음과 같은 발화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의견을 말할 때나 복잡한 요구에 응대할 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사용 언어가 부정확, 불명확하고 반복적이다. 청중을 거의 또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발화시 문장 사이에 공백이 길다. 표현력과 어휘력이 제한적이다.

출처: <http://exam.ybmsisa.com/toicswt/introduce/result.asp>

며, 오류인 것 같으나 정확히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밑줄만 긋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수정한 개인별 스크립트는 원어민이 오류로 분류한 자료와 비교하여 수정 전과 수정 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절/문장구조, 형용사구, 기타, 숫자/가격단위로 구분하였다. 앞의 6가지는 Chin(2001)과 Kim(1998)의 기준을 참조한 것이고,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큼 많이 발생한 숫자/가격단위 오류를 분류범주에 더한 것이다. 각 범주 내에서, 가능할 경우, 오류의 종류를 세분하여 형태오류, 첨가, 생략, 어휘오류 등을 살폈기 때문에 노선경(2010), Yoon(2012)의 기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셈이다.

분류 시 몇 가지 기준이 사용되었다. 먼저 한 문장 안에 복수의 오류가 발견될 시에 그 숫자만큼 오류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So you need to order other menu for making more than ten dollar는 So you need to order other menu to make more than ten dollars로 수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전치사 오사용(for → to), 동사형태 오사용(making → make), 수 불일치(ten dollar → ten dollars) 세 가지 다른 오류 범주로 나누었다.

둘째, 각 범주의 오류에는 그 구성소의 오류를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수 표지(marker)의 오류라 하더라도 five dollars를 five dollar로 표현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인 five와 dollar가 포함된 명사구의 오류로, It costs one dollar를 It cost one dollar로 표현한 경우는 it과 cost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모두 포함된 범주인 문장구조의 오류로 분류하였다.

셋째, 가격 단위의 오류에는 예컨대 four dollars and fifty cents를 four point fifty dollars로 잘못 발화하는 것처럼 dollar와 cent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five dollars를 five dollar로 발화하는 단순 오류는 명사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오류분석

피험자 44명으로부터 수집된 전체 오류 수는 321개였다. 이를 범주별 오류 수와 비율로 표시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범주별 오류 수는 명사구, 동사구, 숫자/단위, 절/문장구조, 전치사 순으로 많이 발생되었으며 형용사구에서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명사구와 동사구의 오류가 많은 것은 기존 Chin(2001)과 김영실(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분석 자료인 토익 스피킹의 문항이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가격을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와 단위 말하기 오류가 많이 나타난 점이다.

표 1. 범주별 전체 오류 수 및 비율

범주	오류 수	비율(%)
명사구	146	45.5
동사구	65	20.2
숫자/가격단위	45	14.0
절/문장구조	44	13.8
전치사구	17	5.3
형용사구	0	0
기타	4	1.2
계	321	100

4.1.1. 명사구

명사구에서 오류는 명사구의 수 표시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78건), 다음으로는 관사(36건), 대명사(17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명사의 형태사용과 어순에 대한 오류는 각각 1건씩이었다. 표 2는 명사구에서의 오류를 보여준다.

표 2. 명사구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관사	정관사 생략 • Let me check (the) menu.	27	8.4
	부정관사 생략 • You must pay (a) delivery fee.	4	1.2
	부정관사 삽입 • We have <i>a</i> chicken and vegetables.	5	1.6
대명사 사용	• Yes, I (we) have chicken meals.	17	5.3
소유격 사용	• Your (Our) delivery fee is...	4	1.2
명사의 형태 사용	• Order(Orders) for delivery must be more than ten dollars.	1	0.3
명사생략	• Yes, we have chicken (meals). • The delivery fee is five dollar (dollars)	4	1.2
수 불일치	• There are three kinds of beverage (beverages)	78	24.4
어휘 선택오류	• The delivery cost (fee) is...	5	1.6
어순	Total the (The total) cost is...	1	0.3
계		146	45.5

명사구 오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수 불일치 오류이다. 숫자와 함께 나타나는 명사의 형태가 복수나 단수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많았으며, 이 결과는 관사 오류가 가장 많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차이는 숫자나 가격과 함께 나타나는 명사를 사용하는 답변이 많은 연구도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사 오류(36건)는 정관사와 부정관사 오류를 모두 포함하는데, 정관사 생략 오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9건은 부정관사 관련 오류였다. 관사 생략오류(31건)가 삽입오류(5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은 기존 연구(김영실, 2004; Chin, 2001; Yoon, 2012)와 같은 결과이다. 대명사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묻는 Do you have...?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명사 we대신 I를 사용하여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9건). 이는 가게라는 상황에서 we를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답변해야 하는 말하기 시험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you로 물어보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I로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유대명사를 생략하거나 잘못된 소유대명사를 사용한 소유격 오류, 주어진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사용된 어휘선택 오류, 문장의 의미 완성에 필요한 주요 명사가 생략된 명사생략 오류 등이 나타났다.

4.1.2. 동사구

표 3은 동사구 하위범주 오류를 나타낸다. 동사구 오류는 BE동사 오류(33건)가 가장 많았고, 본동사 어휘선택 오류(10건), 조동사 어휘선택 오류(7건) 순이었다. 동사형태 오사용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표 3. 동사구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BE 동사	BE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juice (is) also one dollar. • Our delivery service for orders must (be) over ten dollars. 	29	9.0
	BE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i>are</i> have three beverages. • We have Chicken stir-fry <i>is</i> for four dollars and fifty cents. 	4	1.2
	어휘선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fees (costs) four dollars and fifty cents. • We receive (charge) a delivery fee. 	10	3.1
본동사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 order (ordered) Chicken and Fried Noodles and... 	3	0.9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cken and fried noodle and tea can deliver (be delivered). 	3	0.9

동사형태 사용 생략	• You need to order other menu to making (make) more than ten dollars.	1	0.3	
	• You can (get) delivery there. • So you don't (can't) order that.	4	1.2	
조 동 사	어휘선택 오류	• You can (should) order another menu item now.	7	2.2
	생략	• I (will) check the chicken and the fried noodles. • You (must) pay four dollars and fifty cents.	4	1.2
계		65	20.2	

BE동사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E동사 생략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BE동사 삽입은 4건이었다. 생략은 주어 뒤 BE동사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동사 뒤에 오는 BE동사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주어 뒤 BE동사 생략 오류는 자가 수정에서 반 정도가 수정되었다(4.2.2참조). Chin(2001)과 김영실(2004)에서는 동사 시제와 상 사용(tense and aspect)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 시제 오류는 3건만 나타나 두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익 스피킹 문항이 다양한 동사의 상이나 시제를 사용한 답변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BE동사 삽입은 주어와 본동사 사이 그리고 목적어 뒤에 각각 불필요한 BE동사가 삽입된 경우이다.

본동사 오류는 어휘선택 오류와 시제, 태 등 동사의 형태와 관련된 오류들이 있었다. 어휘선택 오류는 문맥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는 동사어휘를 사용한 경우로 동사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오류가 나타난 범주이다. 이는 의사소통 시 청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Chin, 2001). 시제, 태 등의 형태오류는 문장 의미에 적절한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태 오류는 3건 모두 수동형의 동사 형태를 능동형으로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생략은 4건 모두 조동사와 명사 사이에 본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조동사 오류는 조동사의 부정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형태인 don't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동사 생략은 본동사 앞에 문맥 의미상 반드시 필요한 조동사 will, must, can 등이 생략된 경우이다.

4.1.3. 숫자 및 가격 단위

본 연구의 표 4는 숫자 및 가격 단위 오류를 나타낸다. 이러한 오류가 많이 포함된 것은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물건을 주문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숫자/단위 오류는

가격이나 전화번호 등을 묻고 답하는 상황에서 숫자나 가격단위를 정확히 발화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가 청자에게 전달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오류라 할 수 있다.

표 4. 숫자 및 가격 단위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숫자/가격 단위 오류	• Total is four point fifty dollars (four dollars and fifty cents).	45	14.0
	• Chicken stir fry is four dollars and half dollars (four and a half dollars).		
	• Chicken and fried noodles is four fifty dollars (four dollars fifty).		
계		45	14.0

숫자 및 가격 단위 오류는 피험자들이 가격을 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은 후 마지막에 화폐단위를 붙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27건). 예를 들어, \$4.50를 four point fifty dollars로 발화했는데 이는 수정하면 four dollars and fifty cents나 four dollars and fifty로 말해야 한다. 단위를 옳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숫자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four dollars and fifty cents를 four fifty dollars로 발화했는데 숫자 four 다음에 가격 단위 dollars를 생략하고 cents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dollars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숫자 fifty를 fifteen으로 발화하여 숫자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숫자 및 단위오류는 자가 수정 후에도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2.3.참조).

4.1.4. 절/문장구조

절/문장 구조에서의 오류는 주어 동사 불일치(18건)가 가장 많았고, 품사오류(9건), 주어 동사 생략(8건)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절/문장구조에서 나타난 오류를 보여준다.

표 5. 절/문장구조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주어 동사 수의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cost (costs) one dollar. • Our menu have (has) Chicken Stir-fry, Chicken and Vegetables, and.... 	18	5.7
주어 동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have) chicken stir-fry, Chicken and Vegetables, and Chicken and Noodles. • We also have fruit juice and (it is) also one dollar. 	8	2.5
주어 동사 형태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is (Beverages are) cola, tea and fruit juice. 	1	0.3
목적어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will check (the menu). • If you want (us) to deliver some food from our store.... 	3	0.9
어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ease more order food (order more food). • All they are (they are all) one dollar. 	5	1.6
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can't delivery (deliver) your meal. • The deliver (delivery) fee is five dollars. 	9	2.8
계		44	13.8

주어 동사 불일치 중 대부분은 3인칭 단수형의 주어에 -s/-es를 포함한 현재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와 반대로 3인칭 복수형의 주어에 3인칭 단수형태의 동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품사오류는 동사형인 *deliver*와 명사형인 *delivery*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동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명사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명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동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주어와 동사 생략은 매장의 메뉴를 묻는 질문에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메뉴만을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서 주어동사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어순 오류(5건), 목적어 생략(3건), 잘못된 주어 동사 형태(1건)의 오류도 나타났다.

4.1.5. 전치사구

표 6은 전치사구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전치사 생략(9건)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물건의 구매와 관련된 담화의 특성상 전치사 *for*의 생략(6건)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of*, *on* 등의 생략이 있었다.

표 6. 전치사구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 can get delivery (for) chicken and fried noodles. 	9	2.8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 should order over ten dollars (for) delivery. The tea is <i>for</i> one dollar. 	3	0.9
어휘선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you live in (within) thirty miles of our address... There are three beverages for (on) the menu. 	5	1.6
계		17	5.3

본 연구와 유사하게 토익 스피킹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 자료로 사용한 Yoon(2012)의 연구에서는 전체범주에서 전치사 생략 오류가 15.6%로 관사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차이는 장소나 사람 앞에 전치사를 사용한 답변이 많이 필요한 Yoon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가 필요한 답변이 많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토익 스피킹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더라도 문제유형과 담화상황에 따라 오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휘선택 오류는 *within*과 *in*을 구별하지 못하거나(3건) 'on the menu'에서 전치사 *on*을 *for*나 *in*으로 사용한 오류였다. 한편, 불필요한 전치사가 삽입된 경우도 3건 있었다.

4.1.6. 기타

기타 오류는 부사, 접속사 사용의 오류를 포함한다. 부사와 접속사 오류는 각각 2건씩이었다.

표 7. 기타 오류

범주	예문	오류수	비율
부사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Our drinks are one dollar (each). All of our beverages are one dollar (each) When (If) you live within thirty miles of our address... 	2	0.6
접속사 선택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 (But) chicken and fried noodles is four dollars fifty cents. 	2	0.6
계		4	1.2

부사 오류 2건은 두 문장 끝에 each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였고, 접속사는 문장의 의미에 적절하지 않은 연결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형용사구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피험자가 형용사구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도구로 사용한 토익 스피킹 문항이 형용사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4.2. 오류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피험자가 자가 수정한 최종 오류 자료를 수정 전과 비교 분석하여 피험자들의 오류에 대한 인식 양상이 어떠한지 살핀다. 아래 표 8은 각 범주별 피험자들의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오류 건수와 수정 비율을 나타낸다.

표 8. 범주별 수정 전/후 오류 비교

범주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건 수	수정율(%)
명사구	146(45.5)	128(39.9)	18	12.3
동사구	65(20.2)	46(14.3)	19	29.2
숫자/가격단위	45(14.0)	39(12.1)	6	13.3
절/문장구조	44(14.0)	34(10.8)	10	22.7
전치사구	17(5.3)	17(5.3)	0	0.0
기타	4(1.2)	4(1.2)	0	0.0
계	321(100)	268(83.5)	53	16.5

수정 전 총 321건이었던 오류는 53건이 수정(수정율: 16.5%)되어 수정 후 268건으로 감소하였다. 전치사구와 기타 범주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류를 수정한 후의 범주별 오류 수 및 비율은 명사구, 동사구, 숫자, 절/문장구조, 전치사 순으로 수정 전과 같다. 즉, 피험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범주는 수정의 기회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주 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 비율이 높은 범주는 동사구(29.2%), 문장구조(22.7%), 숫자(13.3%), 명사구(12.3%), 전치사구와 기타 순(0%)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피험자들이 동사구 오류를 가장 잘 인식하고 수정한 비율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사구는 수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피험자들이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명사구가 가장 오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주목할 만하다.

4.2.1. 명사구

명사구는 수정율이 12.3%로 전치사와 기타 범주 다음으로 낮은 범주이다. 아래 표 9는 명사구 하위 세부 범주별 오류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

표 9. 명사구 수정 전/후 오류 비교

세부범주	수정전 (%)	수정후 (%)	증감	수정율 (%)	비고 ⁴⁾ (0→x)
정관사 생략	27 (8.4)	26 (8.1)	-1	3.7	
관사 부정관사 생략 ⁵⁾	4 (1.2)	4 (1.2)	0	0	1
부정관사 삽입	5 (1.6)	6 (1.9)	+1	-25	3
대명사 사용	17 (5.3)	16 (5.0)	-1	5.9	
소유격 사용	4 (1.2)	2 (0.6)	-2	50	
명사의 형태 사용	1 (0.3)	1 (0.3)	0	0	
명사 생략	4 (1.2)	2 (0.6)	-2	50	
수 불일치 [*]	78 (24.3)	65 (20.2)	-13	16.7	3
어휘선택 오류	5 (1.6)	5 (1.6)	0	0	
어순	1 (0.3)	1 (0.3)	0	0	
계	146 (45.5)	128 (39.9)	-18	12.3	7

4) 비고는 수정 후 오류로 변경된 건수임.

5) *는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건수가 있는 하위범주이다. 부정관사 생략 1건, 부정관사 삽입 3건, 수 불일치 5건이 발생하였다.

세부 범주별 오류 수정율은 소유격 사용(50%), 명사 생략(50%), 수 불일치(16.7%) 순으로 높았다. 그 밖의 하위범주는 수정건수가 적거나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수정비율보다는 수정빈도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명사와 명사생략은 50%의 수정율을 보였지만 당초에 오류의 수가 매우 작았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은 수의 불일치의 오류 수정이 눈에 띈다. 이 범주의 오류는 당초에도 빈도가 높았으며, 수정 후에도 명사구는 물론 전체 세부 범주 오류에서도 가장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정되지 않은 65건의 오류 중에서 5건은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정확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57건은 오류에 대한 인식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3건은 원래 오류가 아닌 것이 수정 후에 오류로 변경된 경우이다. 오류 수정을 시도한 모든 경우를 따지자면 총 오류 78개 중 21개에 대해 시도가 이루어진 셈이다(26.9%). 즉, 피험자는 명사의 수 표지에 대해 오류를 많이 범하지만 그만큼 신경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거나 오류가 아닌 것을 오류로 변경한 결과는 관사에 서도 4건이 나타났다. 관사 또한 명사구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 하위범주이며, 수정을 실패한 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피험자들이 해당문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1언어에서 명사의 수 표지가 없고, 관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이에 익숙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피험자의 영어능숙도가 높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4.2.2. 동사구

동사구는 가장 수정율이 높은 범주이다. 오류 수가 수정 전 65건에서, 수정 후에는 46건으로 감소되어 총 19건이 수정(수정률: 29.2%)되었다. 세부 하위범주에서는 동사시제(66.7%), BE동사 생략(51.7%), BE동사 삽입(50.0%) 순으로 수정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범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아래 표 10은 동사구 하위 세부 범주별 오류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 결과를 나타낸다.

표 10. 동사구 수정 전/후 오류 비교

세부범주		수정 전 (%)	수정 후 (%)	증감	수정율 %	비고 (0 → x)
BE 동사	BE동사 생략	29 (9.0)	14 (4.4)	-15	51.7	
	BE동사 삽입*6)	4 (1.2)	2 (0.6)	-2	50.0	
	어휘 선택 오류	10 (3.1)	10 (3.1)	0	0	
본 동사	생략	4 (1.2)	4 (1.2)	0	0	
	시제	3 (0.9)	1 (0.3)	-2	66.7	
	태	3 (0.9)	3 (0.9)	0	0	
	동사형태 사용	1 (0.3)	1 (0.3)	0	0	
조 동사	어휘선택 오류	7 (2.2)	7 (2.2)	0	0	
	생략	4 (1.2)	4 (1.2)	0	0	
계		65 (20.2)	46 (14.3)	-19	29.2	

동사구에서는 총 9가지 하위범주 중 3가지 범주에서만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 한 점은, 3가지 모두 50% 이상의 높은 수정율을 보였다라는 것이다. 특히 BE동사 생략은 동사구 내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건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수정 건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들이 발생한 오류를 정확히 인식하고 50% 이상 스스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법을 알면서도 긴장하였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발화를 해야 하는 시험상황 등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동사 어휘선택 오류와, 조동사 어휘선택 오류는 오류 수가 많았으나 수정은 한건

6) 1건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수정을 실패한 경우가 있다.

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BE동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적절한 어휘 선택의 실패는 실수보다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사구와 동사구의 모든 어휘선택 범주에서 수정율에 변화가 없는 것도 이를 설명해 준다.

4.2.3. 숫자 및 가격단위

숫자 및 가격단위 오류는 명사구, 동사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범주이다. 총 45개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6개가 수정(수정율: 13.3%)되어 최종 오류 수는 39개이다. 표 11은 숫자 및 가격단위 하위 세부범주별 피험자들의 오류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표 11. 숫자/가격단위 수정 전/후 오류 비교

세부범주	수정 전 (%)	수정 후 (%)	증감	수정율 %	비고
숫자/가격단위	45 (14.0)	39 (12.1)	-6	13.3	
계	45 (14.0)	39 (12.1)	-6	13.3	

숫자 및 가격단위는 당초 오류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수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험자들이 숫자나 가격단위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도 이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4. 절/문장구조

절/문장구조에서는 총 6개의 하위 범주 중 4개 범주에서 10건의 오류가 수정되었다(수정율: 22.7%). 총 오류 수는 44건에서 34건으로 감소하였다. 표 12는 절/문장구조 세부 범주별 피험자의 오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표 12. 절/문장구조 수정 전/후 오류 비교

세부범주	수정전 (%)	수정후 (%)	증감	수정율 %	비고 (0 → x)
주어 동사 불일치*7)	18 (5.6)	15 (4.7)	-3	16.7	2
주어 동사 생략	8 (2.5)	4 (1.3)	-4	50.0	
주어 동사 형태 오류	1 (0.3)	1 (0.3)	0	0	
목적어 생략	3 (0.9)	3 (0.9)	0	0	
어순	5 (1.6)	4 (1.2)	-1	20.0	
품사	9 (2.8)	7 (2.2)	-2	22.2	
계	44 (13.7)	34 (10.6)	-10	22.7	2

세부범주 내 수정율을 살펴보면, 주어동사 생략(50%), 품사오류(22.2%) 어순오류(20%) 순으로 높았다. 주어동사 불일치는 수정 전 오류 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지만 총 3건의 수정이 이루어져 16.7%의 수정율을 보였다. 이 범주의 수정 양상도 주목 할 만한데, 수정 되지 않은 15건 중 2건은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건은 원래 오류가 아닌 것을 오류로 수정한 것이다. 즉, 주어동사 불일치에서 오류도 많았지만 수정 시도도 많아 피험자가 오류를 많이 범하면서 혼돈스러워하는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5. 전치사구 및 기타

전치사구와 기타 내 접속사와 부사는 수정율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와 기타범주의 오류비율이 낮고 수정비율도 가장 낮았다. khampang(1974)는 제1언어가 무엇 이든 상관없이 영어의 전치사 사용은 모든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치사 습득과 사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가 주어동사 불일치 2건이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오류의 양상과 오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시험 답변에서 나타난 피험자들의 오류를 7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범주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오류와 그 이유를 살폈다. 아울러, 피험자들이 자가 수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 오류를 당초 범한 오류와 비교하여 피험자들의 오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44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총 321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범주별로는 명사구(45.5%)와 동사구(20.2%)에서 가장 오류가 많았던 기존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가격단위(14.0%)에 대한 오류와, 명사구 내에서 수 불일치(24.4%)에 대한 오류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관사의 오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차이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토익 스피킹 문항이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가격을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오류분석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분석대상이 되는 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오류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초로 전사한 자료와 피험자들이 수정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수정한 후의 오류의 범주별 빈도는 수정 전과 동일하다. 덧붙여 전체 수정율이 16.5%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범주는 인식의 기회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고, 오류와 실수를 구별하자면 실수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범주별 수정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사구(29.2%), 문장구조(22.7%), 숫자(13.3%), 명사구(12.3%), 전치사구와 기타 순(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동사구, 명사구, 숫자/가격단위가 주목할 만하다. 피험자들은 동사구 오류를 가장 잘 인식하고 수정한 비율 또한 높았다. 반면에, 명사구는 오류빈도는 가장 높지만, 수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피험자들이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 숫자/가격단위 오류는 총 45건 중 6건만 수정되어 피험자들이 이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도 이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험자들의 오류 인식 결과를 통해 피험자의 언어지식의 내재화 상태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류발생이 높았던 수 불일치, 관사, 주어동사 불일치 등에서는 오류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거나 오류가 아닌 것을 오류로 변경된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들이 해당문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하위범주들에서는 피험자들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오류는 실수보다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류연구에 대해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오류연구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가 어느 범주에서 오류가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각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문법 범주별 분류, 표층전략분류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오류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명사구, 동사구 오류가 많은 점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지만 숫자/가격단위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류분석이 연구도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류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습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오류, 실수, 불명확한 언어지식 각각에 대해 적합한 교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동사구의 BE동사 생략, 절/문장구조의 주어동사 생략처럼 오류발생도 많고, 수정율도 높은 범주는 오류보다는 언어수행 상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교수 시 해당문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발화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담화상황에서 반복적인 말하기 훈련을 통해 확고하게 이를 내재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오류들은 피험자들이 오류를 인식 하지 못한 오류들이었다. 따라서 교사는 오류발생이 높은 문법 및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학습자가 이를 명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숫자/가격단위의 오류는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오류이므로 정확한 숫자와 가격을 말하는 방법을 담화상황 속에서 교수하고, 이를 학습자가 훈련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류발생, 수정시도, 수정실패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 불일치나 관사 등은 학습자가 오류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1언어에 없는 수 표지와 관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목표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수가 많지 않아서 영어 말하기 능력에 따른 오류를 살피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 능력에 따른 오류 유형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⁸⁾ 가능하다면, 언어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자의 오류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가 토익 스피킹 시험 문항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서 피험자의 답변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의사소통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피험자 수가 많지 않고 토익 스피킹 점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8) 조연혜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덕기. (1998). *영어교육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실. (2004). 비니니스 영어학습자의 발화 오류 분석. *비서학 논총*, 13(2), 179-200.
- 노선경. (2010). *안정상태 L2 영어학습자의 말하기 오류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영예. (1999). 대학생 영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언어연구*, 15(2), 73-89.
- 장지혜, 나경희. (2012). 예비 초등 영어교사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영어영문학 연구*, 54(3), 327-351.
- Brown, H. D. (1994).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urt, M.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9(1), 53-63.
- Chin, C. S. (2001). Error analysis: An investigation of spoken errors of Korean EFL Learners. *English Teaching*, 56(2), 97-123.
- Corder, S. P.(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lay, H., Burt, M., & Krashen, S. (1982). *Language tw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C. (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New York: Longman.
- Khampang, P. (1974). Thai difficulties in using English prepositions. *Language Learning*, 24(2), 215-222.
- Kim, H. (1987). *An analysis of learner's errors made in their English composition, especially in the high school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 Kim, J. Y. (1998). Error analysis: A study of written errors of Korean EFL learner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41(2), 21-58.
- Sharma, S. K. (1981). Error analysis: Why and how?. *English Teaching Forum*, 19(3), 21-25.
- Yoon, H. K. (2012). Grammar errors in Korean EFL learners' TOEIC speaking test. *English Teaching*, 67(4), 287-309.

부록(샘플답안)

7번 문항

질문: Hi, I'd like to order something from your delivery menu, but I seem to have misplaced my copy of it.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How much are your drinks?

답변: There are three drinks. The cola is one dollar. The tea is also one dollar. And the fruit juice is one dollar, so all of the beverages are one dollar each.

8번 문항

질문: Do you have any chicken meals?

답변: Yes, of course we have three chicken meals: chicken stir-fry, also chicken and vegetables, and finally there is chicken and fried noodles.

9번 문항

질문: I only want chicken and fried noodles with tea. Can I have that delivered?

답변: Let me check the menu. Actually, your order must be more than ten dollars to be delivered. You said you wanted chicken and fried noodles with tea. Chicken and fried noodles is four dollars and fifty cents and the tea is one dollar. Unfortunately, the delivery fee is five dollars for all addresses within thirty miles and two dollars for each additional ten miles, so you might want add something else. You could order white rice and a few egg rolls to go with that. How about that?

최은영

550-740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언어교육원
전화: 010-2630-8133
이메일: tomatto21@hanmail.net

Received on June 30,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4, 2015

Accepted on September 30, 2015